국민MC 천국MC

(행12:20~25)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국민MC 천국MC>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MC라는 말은 master of ceremony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의식이나 행사의 주인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의식이나 행사의 진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master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국민MC'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국민MC인 유재석 씨라든지, 강호동 씨, 신동엽 씨, 이런 분들을 국민MC라는 타이틀로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나 국민MC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MC를 국민MC가 되게 해주는 상대가 누군가 하면 바로 게스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게스트가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라디오 프로그램이든지

TV프로그램이든지 게스트가 참여했을 때, 이 게스트와의 관계가 MC를 국민MC로 등극하게 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별 볼일 없는 MC로 전락하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국민MC로 등극하게 됩니까?
출연하고 있는 주인공인 게스트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그의 입장이 살아나고, 그의 입장이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국민MC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MC 중에는, 제가 가끔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도 느끼는 겁니다마는, 그 게스트와의 만남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재치와 입담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즉 게스트의 입장을 살려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를 딛고 서서 자기가 돋보이게끔 MC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MC로서의 생명력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이 MC를 국민MC가 되게 하느냐 별 볼일 없는 MC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천국을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시간을 연장시켜주신 이유는 MC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프로그램 MC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뭐냐?
예를 들어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그 남편이라는 타이틀과 신분이 내게 프로그램입니다.
'나'라는 인격이 MC를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타이틀이 곧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게 곧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바로 '나'고, 그 '나'가 엄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아무개의 자녀라는 프로그램, 어느 직장의 직장인이라는 프로그램,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신분이나 타이틀이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내게 MC를 맡기신 이유가 있는 것이, 반드시 내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에는 게스트가 초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게스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남편이라는 역할이 진행되어갈 때,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이신 하나님이 초청받아 오셔서 하나님께서 돋보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살아나도록 하는 MC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의 MC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MC로서 남편이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돋보이게 살아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아빠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나는 MC로써 그 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역할이 도드라지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내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천국MC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신앙의 조상들이 보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도드라지는가를 보고, 천사들이 '야! 진짜 MC를 잘 보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천국 MC가 되는 것이고, 천국 MC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신분과 모든 타이틀과 모든 상황이 다 프로그램이고, 나는 MC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민의 반열 안에 든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여호와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MC 역할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의 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그립바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립바 1세.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본문과 연관된 역사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세푸스의 말을 빌어서 옮겨놓은 것을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가 삶의 터전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서부터 대대로 유대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서 그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헤롯 아그립바 왕이 두로와 시돈으로 곡식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수출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갑자기 멀리 이집트에서 곡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와서 싹싹 빈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립바 왕의 침소에 시중을 들고 있는 블라스도라고 하는 헤롯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인 모양인데, 그를 설득해가지고 헤롯 아그립바 왕의 분노를 삭여서 다시 화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블라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아그립바 왕이 마음을 풀고 다시 화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날을 택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날이 겹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세푸스의 글을 빌면, 당시 로마제국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지금의 영국지역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하고 로마로 귀환을 하는데, 이 승전을 온 로마제국 판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하게 돼요.
원형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들을 통해서 그 세리머니가 진행되는데,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헤롯 아그립바 왕의 주도하에 세리머니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 날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날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입니다, 태양력으로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은 옷이 은으로 장식을 한 옷이었던가 봐요.
그러니 햇빛이 비칠 때 은장식의 옷에 빛이 반사되면서 멀리서 보면, 귀빈석 중에서도 왕의 좌석에서 일어나서 연설을 하는 헤롯 아그립바 왕이 빛 속에 싸였던 겁니다.
이때 그 연설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먼저 글라우디오 황제를 찬양했을 것이고, 두로와 시돈과의 화친이 다시는 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서 계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친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겁니다.

이때 유대주의에 속한 유대사람들이라든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보고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하고 아첨을 한 것입니다.
빛에 휩싸이면서 화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헤롯 아그립바에게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그 감동받은 김에 아첨이 되고 '신의 소리'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신의 소리'라는 칭찬을 그대로 자기가 흡수해버린 겁니다.
축하 세리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헤롯 아그립바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로 됩니다, 교회를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벌레 먹어 죽는 사람들의 대표가 된 겁니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벌레 먹어 죽습니까?
결국 MC 역할을 못하는 선민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MC 역할을 잘한 예를 들어봐라, 어떤 예가 있느냐?
있지요, 천국 MC의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MC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 MC는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정말 위기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모세가 MC로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여호와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바다와 뒤에는 애굽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과 이 무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려면 집중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바로 MC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대에 이 상황의 주인공이신 게스트 여호와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 이것만 하고 산 거예요.
어떠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민족의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주어져있는데 그 타이틀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자기는 그 프로그램의 MC 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 MC로써 주인공 게스트이신 여호와하나님만을 초청하고, 여호와하나님의 입장이 드러나고, 여호와하나님이 말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인공 게스트가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게 된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MC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또, 신약으로 오면서 MC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천국의 MC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MC가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나 하면, 앞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잠을 잤다는 게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식의 해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식 스토아학파의 초월적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목 베임을 당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군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은 겁니다, 마음의 관심이 죽고 그 마음은 주님 따라 하늘나라에 가있는 겁니다.
해탈도 체념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 따라 하늘나라에 함께 가있으면서 느끼는 평강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관심이 제로가 된 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한 관심조차도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일에 대해 제로가 되는 것, 내가 남편인데도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고, 아빠인데 아빠라는 신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고, 아내인데 아내라는 신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고, 사장인데 자기가 맡아서 운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제로가 되는 것, 이 제로 됨이 더 이상 강력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얽혀있는 약속이 그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받은 자기 타이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될 때에, 그 타이틀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의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활동하셔서, 내가 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돋보이고, 내가 엄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돋보이고, 내가 사장이고 직장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국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돋보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사건 이후의 MC들은 최고의 MC, 천국의 MC로 등극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는 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만 깨어있다는 것은 내 기쁨과 내 만족은 하나님만으로 된다고 믿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고 결심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죽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MC로 천국 MC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립바 왕은 자기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등극에 공헌해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고, 통치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유대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교회를 탄압하고, 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분노하면서 두로와 시돈에 제재를 가해서 꺾어버리는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로서의 자기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권모술수가 능하고, 유대사람을 만나면 유대주의, 헬라사람을 만나면 헬라주의, 기회주의에 능하고 처세가 능한 탁월한 정치꾼입니다.
벌레 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어떤 술수를 쓰고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지옥 불에서 벌레 먹는 인생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천국 MC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누가 천국 MC가 되어 삽니까?
천사들이 볼 때, 이 땅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분이 수행되어질 때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만이 돋보이고, 하나님의 역할만이 눈에 띠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MC, 천국 MC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MC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국민 MC, 천국 MC,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인공 게스트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돋보이죠.
이 MC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이 땅에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MC로 살다가 천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천국 MC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신분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한 기회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돋보이게 하는 천국 MC들로 살다가 천국으로 영입되어질 수 있고, 천국으로 스카우트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